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</h1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10.20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
	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(02-3705-5050)		여 인 채 부장 (02-3705-5704)

제 목 :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·입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

10.20일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'입주사업장 점검 TF' Kick-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◆ '입주사업장 점검 TF Kick-off 개요

- 일시 / 장소: '21.10.20.(수) 15:00 ~ 16:00 / 은행연합회
- 참석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

○ 금일 회의는, 지난 10.14일 제시한 전세·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*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.

- * ① (전세대출) 4/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, 필요범위내 대출공급
- ② (잔금대출)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

앞으로 동 TF를 통해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,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.

- ① 금년 4/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금융권이 공유할 계획입니다.
- ② 잔금대출 취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,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 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③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,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할 것입니다.

□ 동 TF는 금년중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, 문제발생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.

○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,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